

신안 전 지역 갯벌 도립공원 지정

전남도, 팔금·자은·임자면 갯벌 18㎢…갯벌 없는 흑산도 제외

흑산도를 제외한新安 전 지역이 갯벌도립공원이 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신안군 10개 읍·면으로 지정된 신안 갯벌도립공원을 8일자로 흑산면을 뺀 13개 읍·면으로 확대해 지정, 고시한다.

확대 지역은 팔금·자은·임자면에 분포한 갯벌 18㎢다. 흑산면에는 갯벌이 없어 공원 지정에서 제외했다.

지난 2008년 신안 증도 갯벌 12,824㎢를 전국 최초로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2013년 10개 읍·면 144㎢로 확대했고, 이번에 3개 면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신안 전역 161㎢가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올해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면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자원 보존 등을 위해 도립공원 확대를 추진했다.

3개 지역 확대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2015~2016)에서는 대상지가 도립공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곳에는 바지락·낙지 등 갯벌 생물, 멸종 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검은머리물떼새, 천연기념물인 흰꼬리수미·소쩍새 등 280여 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안 갯벌은 이미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장도와 증도는 철새 서식지로서 국제적 중요성이 인정돼 유엔이 랍사로 습지로 지정하는 등 자연생태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송경일 전남도 환경국장은 “신안 전 지역의 갯벌도립공원 확대 지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 보전·관리, 관광객 유치, 지역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신안 증도 갯벌.

도 중기 설 자금 200억 지원

전남도는 설을 맞아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위해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명절 경영안정자금은 경영 악화 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전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올해 첫 반영한 것이다.

지원 조건은 기업당 최대 3억원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이 부담할 대출이자 중 최대 3.0%를 전남도가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이 3명 이상 늘고, 자금 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일자리 창출기업’, 자금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출생아 및 전입자가 1~4명 이상 늘어나는데 기여한 ‘인구 늘리기 참여 기업’ 등 전남도 시책 참여기업은 우대한다. 이들 기업은 융자 한도를 5억원으로 늘리며, 이자 지원도 2.5%에서 3.0%로 확대한다.

자금 지원을 바라는 기업은 오는 14일까지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적극적사를 거쳐 은행을 통해 자금 지원을 한다.

박종필 전남도 중소기업과장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도록 적기에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정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전남도 중소기업과 061-286-3762,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 061-288-3832.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친환경차 기업, 광주로 오세요

으로 광주시 투자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7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친환경자동차 관련 기업 대상 2018년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해 국내외 친환경자동차산업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광주시 제공〉

북 응원단 “반갑습니다” 태권도시범단 ‘손인사’

강원 인제스피디움에 도착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들을 응원할 북한 응원단과 태권도시범단 등이 7일 방남, 숙소인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3시 18분께 숙소에 도착한 이들은 버스 9대에서 나눠 내린 뒤 기다리던 취재진에 대체로 밝은 미소를 보였다. 남성들은 검은색 코트에 털모자, 여성들은 붉은 코트에 검은색 털모자와 목도리를 착용했다. 한 손에는 검은색 혹은 자홍빛 손

가방을 들고있고, 모두 좌측 가슴에는 인공기를 달았다.

소감을 묻는 말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지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수줍게 인사했다. 어떤 응원을 보여줄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언론의 취재 열기가 부담스러운지 시선을 땅에 고정한 채 발걸음을 재촉한 이들도 있었다. 스피디움 앞에서 남쪽 환영객은 응원단을 향해 “애빠요. 잘 오셨어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응원단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북측

선수들의 경기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뿐만 아니라 남측 선수들의 일부 경기에서도 응원전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응원단에 이어 버스에서 내린 키 170~180cm의 건장한 남자 선수 위주의 태권도시범단은 좀처럼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가볍게 손을 드는 정도로 인사를 감췄다.

응원단과 태권도시범단 등이 버스에서 내리기 전 버스 앞으로 취재진이 몰려든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조선중앙통신 소속 기자들도 눈에 띄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원칙 수사로 국민 의혹 해소할 것”

양부남 수사단장 밝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을 맡게 된 양부남(57·사법연수원 22기) 광주지검장은 7일 “일체 고려없이 원칙적으로 수사해 국민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검에 마련된 수사 사무실로 떠나기 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사진〉

그는 수사관 인선 기준에 대해 “좌고 우면하지 않고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검사와 수사관을 발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 검사장을 단장으로 한 수사단은 차장검사 1명과 부장검사 1명, 평검사 5명 및 수사관들로 구성된다. 수사단 인선도 양 검사장이 독자적으로 한다. 그는 구체적인 수사 계획과 자신의 발탁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떠나는 차에 타면서 직원들에게 “광주지검을 잘 지켜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양 검사장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광주지검은 차장검사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양 검사장은 2003년 대전 자금 수사, 2009년 방위산업비리 수사, 2014년 원전비리 수사 등을 해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로로 평가된다.



였다.

양 검사장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광주지검은 차장검사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양 검사장은 2003년 대전 자금 수사, 2009년 방위산업비리 수사, 2014년 원전비리 수사 등을 해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로로 평가된다.

그는 전남 담양 출신으로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를 나와 ‘검찰의 꽃’ 검사장 자리까지 올라 ‘SKY’ 출신이 즐비한 법조계에서 ‘흙수저 검사’로 통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임대주택 비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구속

수백억 원대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7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업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익을 챙긴 데 이 회장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부인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가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가카 운

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이 회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된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추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회장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모 부영그룹 재무본부장과 이모 전 ㈜부영 대표이사사의 영장은 기각됐다. 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에 부영의 미술품 단가 부풀리기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부영 측으로부터 2011년~2014년 5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를 받은 계열사 동광주택의 전직 경리직원 박모씨는 구속됐다. /연합뉴스

임야·전·답·바로 삽니다!

전국·땅

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NPL 등 특수물건만 취급★

경매·투자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건물임대
| 병 원 적 합 |

건 물 명	일신방직 내 건물														
위 치	광주 북구 임동 100-64번지(나동)														
대지면적	5,464㎡														
연 면 적	4,792.83㎡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병원등 용도변경 가능)														
	<table border="1"> <tr> <th>층 별</th> <th>면적(㎡/평)</th> </tr> <tr> <td>지하</td> <td>499.1㎡(151평)</td> </tr> <tr> <td>1층</td> <td>655.2㎡(198평)</td> </tr> <tr> <td>2층</td> <td>1,064.2㎡(322평)</td> </tr> <tr> <td>3층</td> <td>1,064.2㎡(322평)</td> </tr> <tr> <td>4층</td> <td>1,064.2㎡(322평)</td> </tr> <tr> <td>계</td> <td>4,346.9㎡(1,315평)</td> </tr> </table>	층 별	면적(㎡/평)	지하	499.1㎡(151평)	1층	655.2㎡(198평)	2층	1,064.2㎡(322평)	3층	1,064.2㎡(322평)	4층	1,064.2㎡(322평)	계	4,346.9㎡(1,315평)
층 별	면적(㎡/평)														
지하	499.1㎡(151평)														
1층	655.2㎡(198평)														
2층	1,064.2㎡(322평)														
3층	1,064.2㎡(322평)														
4층	1,064.2㎡(322평)														
계	4,346.9㎡(1,315평)														
임대물건															
임 대 료	별도협약(리모델링 비용지원)														
권장업종	병원/학원등														
장 점	도로접(2차선 양방향), 시내중앙, 일신방직 직영임대														

임대문의 | **062-510-5120**
일신방직 관리팀

2018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6기)	광주교육대학교(17기)
개강일시	·화요일 오전반: 2018. 3. 6.(화) 09: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8. 3. 10.(토) 09:10 (특급반)	·월요일 오전반: 2018. 3. 5.(월) 09:10 (초급반) ·금요일 오전반: 2018. 3. 9.(금)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8. 3. 10.(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8. 2. 1(목)~3. 10.(토)	2018. 2. 1(목)~3. 10.(토)
수업기간	2018. 3. 6.(화)~2018. 8. 18.(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8. 3. 5.(월)~2018. 8. 1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 단계수과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학문회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 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1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0621520-4243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기숙사가 완비된 신학교/200명 숙식 가능

광주바이블칼리지

NAVER | 광주바이블칼리지 | 검색

▶개혁주의 보수교단에 속한 유명 교수들의 수준높은 강의
▶대한 예수교 성서총회 인준 신학교로 졸업후 목사안수(여목사 제도)
▶오랜 경력의 교수들이 담당하는 개혁신학 강의와 구구속사적인 통찰한 가르침
▶목회사역과 현장 중심의 실재적인 수업

광주바이블칼리지 입학안내

- 모집기간: 수시모집
- 모집인원: 월요반, 저녁반(월, 화), 토요반 30명 내외
- 구비서류: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접 수 처: 본교 행정실
- 등록금과 장학혜택에 관해서는 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신학연구과 교수진: 이원수학장 외 16명 (교수진 대부분이 합동교단 소속임)
◆목회자 성경대학원 교수진: ·장용삼 목사 (광주바이블칼리지)
·고경태 목사 (주님의 교회)
·최사채 목사 (염산재교회)

광주바이블칼리지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도동길 42-34
광주국제기독교스쿨 Fax 061-381-1367

상담문의 ☎ 061-381-0000/1365
H. 010-3759-9774, 010-3636-9200